

속 기 록

- ☐ 회 의 명 : 제 414차 위원회 전체회의
- ☐ 일 시 : 2026. 2. 27(금) 14:00 ~ 17:46
-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 ☐ 불참위원 : 왕치선 위 원

1. 성 원 보 고

정병국 위원장 : 제41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주 노동조합 비대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극장운영팀 심정훈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1인 중에서 현재 8인이 참석하였습니다. 성원은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가 성기숙 위원님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장미진 위원님은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왕치선 위원님은 해외에 가셔서 못 오십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6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심의 결정의 건, 2026년 예술극장 운영계획(안), 2026년 예술기록원 운영계획(안), 2026년 예술인력개발원 시설 기본 운영계획(안), 2026년 무대예술전문교육 기본계획(안), 2026년 공동창제작지원 지원금 조정 및 잔여예산 활용계획(안), 2025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안), 2025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재산 설정(안), 2026년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 기본계획 등 의결 안건 9건과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계획(안) 보고 등 보고 안건 4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제412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10건이 상정되어서 원안의결 9건 그리고 1건이 보류되었고요. 2월 9일에 개최한 제413차 서면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79호 2026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나영 문학지원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안건 제1179호 2026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문학 분야 작가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활동지원금뿐만 아니라 저희 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문학광장 그리고 오프라인 축제인 문학주간 연계를 통한 다양한 활동지원, 또 창작에 필요한 집필실 지원, 또 번역원과 연계한 해외홍보와 이후 해외레지던시 지원 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1년 동안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정시공모 시에 추진계획을 의결해 주셨고요. 12월 한 달 동안 지원신청을 받아서 총 4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에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과 1차와 2차 심의를 거쳐서 오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현재 장르위원님이 부재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는 심의위원 후보단 내에서 랜덤 추출을 하였고요. 2차는 전담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심의 같은 경우에는 시/시조, 소설, 아동/청소년, 수필 등 4개로 구분해서 약 2배수인 61명을 선정하였고요. 2차 심의에서 최종 3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포기를 대비해서 예비후보 9명을 선정하였고요. 30명 중에 30%인 9명이 비수도권으로 지역균형제도 권고 비율을 상회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2차 전담심의에서 제척이 1건 있었습니다. 에이전시 소속 작가가 신청을 함으로써 전담심의위원 중에 1명이 참석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3월 4일에 결과 발표를 진행하고요. 이후 30명 작가께서 올 한 해 문학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1180호 2026년 예술극장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2026년도 아르코예술극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22쪽입니다.

저희 예술극장 인력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9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별정직, 파견직, 공무원 6명을 포함해서 극장운영팀이 총 38명이요 무대예술팀은 무대예술팀장을 포함한 무대, 조명, 음향 등 관련된 직무 담당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중점 추진 전략입니다.

지금 미래형 공동극장으로서 외연 확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연의 제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한 우수 창작 레퍼토리가 발굴되고 공연되어 짐으로써 향유가 가능한 공연장으로서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 가능한 공연장 환경 구축을 통해서 창작활동 활성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뿐만 아니라 홍보 그리고 평론의 활동을 통한 작품과 관객을 잇는 활동들 그리고 하우스 티켓매니저 등 다양한 관객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지난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정기대관 총 65건이 선정되었고 현재 약 3건 정도의 수시대관이 결정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정적으로 해당 공연들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운데 저희가 지난해에 공동 기획으로 할 수 있는 작품을 9개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 공동 기획 작품들은 우수한 작품 가운데 각 지원사업들로부터 선정되지 못해서 작품 제작 여건이 어려운 작품들을 저희가 별도로 발굴해서 대관료 무상 지원을 통해서, 다만 티켓 수입을 2대 8정도로 나누는 구조로 해서 작품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아르코꿈발극장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데요. 5월에는 저희가 예술로 소풍과 연계해서 그간 어린이·청소년 예술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우수한 작품을 선별해서 3개 작품을 기획 공연으로 저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고요. 6월에는 어린이·청소년 2차 제작 지원을 통해서 선정된 4개 작품을 저희 아르코꿈발극장에서 시즌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어린이·청소년 신작 4개 작품을 이미 발굴했고 그 작품들을 저희가 시즌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 외의 기간에는 아시테지가 하고 있는 여름 겨울 축제가 각 7월과 8월 그리고 12월과 1월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씨앗 단계라고 해서 현재 어린이·청소년 예술 작품들을 발굴하고 중간중간에 쇼케이스나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극장, 텃밭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2개월 정도의 대관 기간은 수시대관을 통해서 필요한 대관 단체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르코꿈발극장에서도 올해 무대와 연습실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 개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연장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당연히 2개 극장 모두 노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 있는 사전점검,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설 개보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특히 아르코예술극장 리모델링 예비타당성이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와 함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최종적인 현장 실사를 거치고 기재부를 통해서 올해 계속해서 리모델링 예비타당성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술극장 제작 공연 관련입니다.

올해 봄 작가, 겨울 무대에서 여름 낭독 시즌을 포함해서 총 17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봄 작가, 겨울 무대 10개 작품 그리고 여름 낭독 시즌으로 7편 정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겨울에 무대 공연으로 3편의 작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용 분야에는 아르코 댄스 UP:RISE라는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테이지 1의 4편은 완성 단계는 아니고 쇼케이스 단계 안에서 4편 정도를 저희가 올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이 작품들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멘토링과 다양한 별도의 지원들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PD와 함께 해당 작품들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내년 5월 정도에 스테이지2로 올리는 작품이고요. 지난해에 진행되었던 스테이지1의 4편 가운데 선정된 2개 작품들이 올해 제작되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술극장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접근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대관하는 작품들 중에서 11편을 선정해서 저희가 공동 기획 방식으로 접근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봄 작가 겨울 무대라든가 직접 제작하고 있는 18개 작품에 대해서도 역시 접근성 작품들을 제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접근성 워크숍을 실무자들과 함께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서 조금 더 많은 관객들이 접근에 대한 큰 어려움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창작 담론들을 계속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후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2개년 정도 진행되었던 예술가들과의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기후 프로젝트를 같이 할 예술가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도 역시 예술가와 저희 극장 그리고 시민이 이어지는 그런 기후 프로젝트에 대한 담론들을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역시 저희 시설들을 적극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간단한 예로 극장 텃밭 가꾸기 같은 프로그램들도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확장된 범위 안에서 공연장 그린라이더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정형화된 지표로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현재 기획 중에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저희 극장이 아무래도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까 다양한 관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서의 거리감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도 역시 ‘예술로 소풍’ 그다음에 ‘꿈잼학교’, ‘나도 배우’, ‘나도 무용수’라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 극장을 통해서 또는 우리 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발표되었던 작품들 중에서 영상화 되어 있는 우수한 작품들을 선별해서 저희 예술극장 앞마당에서 예술극장 시네마를 올해도 역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홍보·마케팅, 공연장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은 일반적인 사항들이고요. 고객 접점 서비스에서 고객지원센터 운영이나 하우스 운영, 티켓, 회원 운영관리 같은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자료로 같음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 시설 및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무대 기술 119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대폭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안전 물품이라든가 필요한 장비들을 대여를 통해서 소극장 공연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리스크들을 줄이고 공연이 멈추는 일들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대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는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의 무대 상부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컨디션 자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것은 배우들에 대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30억 신규 예산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해서 안전하게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은 지난해 극장에 대한 정량적인 성과들을 간단하게 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극장 가동률을 보시면 2025년도에 87.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르코꿈발극장 같은 경우도 첫째 직접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92.95%로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보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 공연과 관련된 객석 점유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회극작가 발굴 사업으로는 가장 두드러지게 촉망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봄 작가 겨울 무대 같은 경우는 전 회차가 90% 중반대를 넘어서는 상당히 높은 관객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아르코 댄스 UP:RISE는 시행 2회차입니다. 스테이지1 같은 쇼케이스임에도 76.6% 정도로 첫 회를 보냈고요. 스테이지2는 완결된 공연들을 보여줬는데 80%를 상회하는 관객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예술극장 접근성 PD가 제작 공연으로 5개 작품을 공동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운영협력과 관련해서 10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접근성과 관련된 운영 장비, 스태프 매칭 지원을 했습니다.

기후 프로젝트는 가보지 못한 극장이라는 공연 제작을 지난해에 했고요. 전 회차 매진을 통해서 총 5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여형 방식들의 공연이었기 때문에 회차별 관객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120명을 상회하는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전 회차가 현재 매진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로 진행되었던 예술가-시민 극장을 잇는 프로그램에서 ‘인도농사연극’ 워크숍, 낭독회 등 7개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예술가들 그다음에 저희 극장과 시민들이 함께 만나서 토론하는 워크숍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술로 소풍입니다.

예술로 소풍은 지난해에 총 12번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 10회, 나주에서 2회를 진행했고요. 축제 방문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4,500명에서 2025년도에는 5,500명 정도로 약 1,000명 정도가 늘었고요. 축제에 대한 만족도도 5.0 만점 대비 4.5로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꿈쟁학교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10회 추진을 했습니다. 총 6개 학교가 참여했고 학생들 모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높은 만족도를 쫓고 96.4%의 만족 결과를 쫓습니다.

이상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들은 25쪽부터 있는 붙임자료를 보

시고 궁금하신 점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술극장 인력 현황에 극장장은 왜 공석인지 여쭙봐도 되나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지금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공고가 나간 상태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미술관 관장도 그렇고 극장장도 그렇고 고위공직자 공개모집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위원장이 오면 할 수 있게 해서 지금 대리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가용 객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3쪽을 보면 920, 920, 440, 484, 440석이 고요. 그 밑에 댄스는 640, 410, 423석으로 달라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작품별로 사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극장별로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별로 객석을 오픈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무대세트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좌석이 있는 경우는 그런 객석을 오픈하지 않아서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죠. 920석이 아르코대극장이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전 회차에 대한 가용 객석으로 920석을 티켓으로 오픈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관람인원이 905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공연물에 따라서 사이드를 닫는 경우가 있고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들어와서 그런 객석들은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정갑영 위원 : 그러면 920석 자리는 원래 몇 석짜리 공연장인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한 130정도 되는 공연장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6, 7, 8, 9, 10일로 5일 동안 했는데 130석이면 넘는데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8편에 대한.

정갑영 위원 : 8편을 했다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객석을 오픈하면 100석 정도가 거의 오픈되는 게 평균치인데요. 그래서 거의 전 회차가 만석이 되었다는 거죠.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5일간 8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2편 공연하는 날도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김미라 위원 :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공연장 그린라이더 개발이라고 하시면서 한국형 공연 제작 프로토콜 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희 공간에 텃밭 말고 전국으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토콜 개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지금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사안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극장들을 진행할 때 저희 극장 같은 경우도 되게 노후화된 극장들이라 실질적으로 극장에 공연이 올라갔을 때 전력 사용률이나 열 사용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탄소가 배출되는지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극장에 대한 전력 사용량은 미술관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되는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작품에 대한 전력 사용량이 얼마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 기업과 예술가들이 함께 각 작품별로 사용되어지는 열 사용량을 추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단체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경우 많이 사용되는지에 대해 현황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작품들의 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들을 올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미라 위원 : 예. 사실 다른 장르에서도 예술 활동을 하는데 많은 쓰레기를 양상하는 문제가 제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서도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같이, 조명에서는 스마트 조명을 써서 사람들이 있을 때만 불이 켜지는 센서를 활용한 방법 등은 다른 장르에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개발이 돼서 전 장르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또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유료 관객이 얼마인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올해 계획이나 작년 성과 어디에도 수입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어요. 도대체 이 공연에 어느 정도의 유료 관객이 있었을까? 또 축제의 경우에는 5,00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보통 헤베(m²) 면적당 오시는 분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 오시는 헤베(m²) 면적당 추출을 합니다. 서울만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앞마당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회차당 300명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저희가 회차별로 환산해서 뽑고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집회가 있을 때 보면 추산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더 정확하게 수치를 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료 객석 점유율을 알 수가 없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데이터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장미진 위원 : 대충 몇 %가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나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이런 사업들은 기획자나 관계자를 초대하고 예술위원회 내부의 유보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유료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낭독 공연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완성된 작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낭독 공연은 다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겨울에 진행된 겨울 무대 같은 경우, 댄스 UP:RISE, 스테이지2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유료로 판매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유·무료 관객들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지금 장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유료 관객으로 하는 기준, 어떤 것은 유료 관객이고 어떤 것은 무료 관객인지?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보다가 심의 참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만 표시가 돼서요.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만족도인지를 봤는데요. 너무 짧은데요. 예술위원회의 작품 만족도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성향하고는 별도거든요. 원래는 만족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이 추구하는 예술성이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 혹은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80%, 90%가 되는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얘기하실 때 시민 관객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시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다른 시장과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미진 위원님이 유료 관객을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유료 관객을 하는지? 또 제가 후원센터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작품을 지원하고, 이 작품 창작지원하고 후원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창작지원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다면 사실 들어오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후원과 연결이 되면 좋은데요. 지금 우리 후원 활동을 보니까 후원은 창작 공연, 전시와는 별도로 후원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극장 운영을 하실 때 기획과 제작, 유통을 쭉 단계별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참 좋기는 하지만 후원과 별도로 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고도화된 후원이라고는, 후원센터에서 아무리 후원하더라도 이쪽과 별도로 가면 후원이 잘 안되거든요. 그것은 한 번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후원센터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유·무료 관객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비상업적 그러니까 완성된 작품이 아닌 경우, 쇼케이스로 진행되는 낭독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완작의 경우에는 100%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객석에 있어서 유·무료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저희가 극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보석이 있습니다. 유보석은 저희 극장의 위원님들,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유보석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해당 단체가 유료로 당연히 진행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구문모 위원 :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을 보니까 창작 예산하고 향유예산이 60%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 심의에 참여하면 향유 만족도가 나올 텐데요. 이게 우리 주체성하고 별도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구문모 위원 : 두 번째 질문은, 제가 65쪽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업추진비에서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술극장 심의 및 프로그램 진행비가 나오는데요. 특히 발표하실 때 공동기획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공동 기획이면 우리 예술위원회와 다른 쪽이 같이 기획한다는 뜻이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통상 저희 극장 공동 기획은 극장과 예술단체 간에 공동 기획을 의미합니다.

구문모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공동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예술위원회의 심의제도와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마 공동 기획으로 선정할 때 이해관계자와 갈등 문제도 발생할 텐데 사실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 운영제도가 있거든요. 이 기획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이 프로그램을 사실상 진행할 때 변경·승인할 때도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저희 공동 기획 선정 심의는 저희 극장장님이 당연히 계실 때 심의가 진행되었어요. 극장장님을 심사 위원장으로 해서 대관심의위원님들과 함께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정을 하는 심사의 기준들을 말씀드리면, 저희 극장이 지향하고 있는 3개의 가치인 접근성, 다양성, 기후프로젝트라는 3가지 가치에 맞는 작품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 작품들에 대해서 대관료를 무료로 해 주는 대신에.

구문모 위원 : 이해가 되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그 사항은 지금 의결 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러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뜻 아닌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극장 대관 심의가 별도 공연장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 기획을 하면, 주인은 위원회인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그 부분은.

구문모 위원 : 좀 세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몰라서 하는 얘기로 이해하세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극장장님을 개방형 공모직을 통해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극장장님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모든 건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현재 공연장 운영 규정 안에서의 대관 심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문모 위원 : 공동프로그램 선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들은 아니고 극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구문모 위원 : 여기에서 다 설명을 못 하신다고 하면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접근성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람환경에 대한 접근성에 경계 없는 예술 공연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접근성에 2가지가 있습니다. 관람환경에 대한 접근성과 공연 내용에 대한 배리어프리적인 접근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접근성은 2개를 다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창작자와 장애 당사자 간에 협업 무대를 안착한다는 내용으로 접근성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협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준을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해설 공연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사 배치 등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중간에서 협업 무대에 대해서 함께 핸들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선 질문을 주신 부분은 2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맞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질문을 주신 것은 저희 PD님이 접근성 관련해서 접근성PD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창작자가 장애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스터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 당사자가 갖고 있는 깊이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시각도 장애 등급별로 다 다르고 청각도 장애 등급별로 다 달라서 그런 것들을 직접 상호 소통하고 직접 실습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장애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창작자가 그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그런데 그 워크숍을 통해서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런 모델들이 사실 비용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배리어프리 공연이 아직은 생성되고 있는 중이라서 좀 많이 서치를 하셔서 그런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문모 위원 : 간단한 것을 하나 더 여쭙볼게요. 여기 내용에서 예산 배정을 보면서 제가 관심 있었던 게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그것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별도로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후화에 따른 무대, 시설, 조명, 장치물을 교체하잖아요.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기금에서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은 창작과 아주 필수적으로 관련 있는 것인데요. 지금 노후화 문제와 조명 문제는 다 창작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논리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금이 아닌 별도의 재정이나 일반회계로 설득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창작이 우리는 주목적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일단 올해 진행되는 무대 상부 기계장치는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입니다.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르코예술극장이고요. 그래서 30억을 기금에 태워서 올해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예비타당성 안에서 저희가 800억 정도 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기금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문체부와 현재 일반회계 안에서, 국고 안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체 기금 현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을 기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보수를 하게 되면 규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정갑영 위원 : 예술로 소풍은 항상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사실 저희 극장이, 물론 나주에서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 극장이 일반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작품의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용과 연극이 좀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하다 보니까 극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극장 앞에서 하면서 저희 극장을 함께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일반 시민이라고 하면 서울 시민만 있는 게 아닌데요. 저는 2년 이상 문제 제기했던 겁니다. 서울문화재단이 해도 되고, 또는 종로문화재단이 해도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해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서울에서 하나? 그랬더니 나주에서 한번 하더라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연 2회 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한 것인데요. 서울에서 하는 것에 대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예술로 행복한 세상인데 “서울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 곧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다.” 이런 이유가 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가 않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맞습니다. 회차 당 2,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들을 상업화시켜서 전국 단위로 확산을 시켜야 한다면 저희 극장이 수용해야 할 사업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정갑영 위원 : 전국단위의 확산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한번은 수원에서 하고 그다음은 다른 데에서 하는 등 방법은 많이 있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그런데 이 사업은 극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 극장 앞을 선택한 것이라서요.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 시작되었던 것은 주말이 되면 극장과 미술관을 눈앞에 바로 두고도, 미술관은 무료잖아요. 그런데 바글바글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활용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문턱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인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인데요. 하다 보니까 호응이 커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우리 아르코꿈발극장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나눠주고 그분들이 여기에 등록해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받고요. 이렇게 해서 극장을 홍보하고 들어와서 활용하도록 유도했던 것인데 이게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처음 의도가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나주로 간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갔는데 지역을 위해서 한 것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나주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로 돌게 되면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팀장이 얘기한 대로 극장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연예술지원팀에서 해야 할 부분인지가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정갑영 위원 :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극장이 도대체 어디에 속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아직도 예술 정책에서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서울시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굳이 왜 위원회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3억 가까이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나는 입장에서 드리는 고언인데요. 이렇게 하면 예술위도, 극장에 대한 문제도 다시 제기됩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공공극장의 운영 방향, 공공극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여기 미래형 공공극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형 공공극장으로서 외형을 확장해야 된다는 큰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예술위원회 소속의 공공극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자의 역할도 조금 하려고 하고 대관의 기본적인 것들도 추구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여기에서 빠진 게, 사실 요즘 공공극장의 전체적인 운영의 방향성, 공공극장도 그렇고 민간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술가 못지않게 중요한 게 관객이잖아요. 관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객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물론 예술가, 창작자 중심의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관객이기 때문에 관객을 놓치면 극장 자체의 중요한 논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형 공공극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은 관객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마케팅 쪽인데요. 같이 연관 지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예술극장이라고 하는 브랜드. 공공극장의 어떠한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마케팅이 더 중요하고요. 그런데 홍보·마케팅을 예술극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후원센터에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하는 거잖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후원센터를 통해서도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극장은 자체 플랫폼을 갖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뒤집어보면 홍보의 통일성도 없고, 홍보가 일원화 되지도 않다 보니까 홍보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니꺼냐?, 내꺼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홍보·마케팅 부분을 예술극장이 주도하는지? 아니면 사무처로 넘어와서 후원센터에서 쥐고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현재는 개별 작품별로는 저희 극장이 주도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극장이 하고 있는 공공영역 안에서의 전략적으로 같이 발표해야 되는 서비스나 지원 정책 방향의 전환점이 있다면 후원센터와 같이 전략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극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작품이 올라가는 대관 서비스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올라가기 전에 해당 작품에 대한 프리뷰를 전문기구 통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품이 끝이 나면 해당 작품에 대한 비평에 대한 글을 올려서 작품을 조금 더 관객이 이해할 수 있고 전문 공연을 올렸던 해당 단체가 그런 것들을 리뷰를 통해서 작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극장에 오게 되면 이 극장 주변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과 다양한 먹거리를 할 수 있는지까지 폭넓게 해서 전문가층과 일반 시민들 층으로 나눠서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주신 것처럼 홍보 플랫폼이 SNS뿐만 아니라 극장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각화 되어 있어서 집중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극장 홍보도 다 통합하려고 했는데 예술후원·홍보센터에서 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홍보와는 홍보 방향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요. 그래서 극장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해오던 것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통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왔을 때 모든 홍보를 사업팀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했는지 전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아르코의 정체성도 안 드러나서 그 방향을 묵자고 해서 예술후원·홍보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극장도 같이 묵자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극장이 하는 것보다 예술후원·홍보센터가 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이것은 묵지 못했던 겁니다.

김진각 위원 : 어쨌든 간에 홍보라는 게 예술극장은 아르코의 산하기기 때문에 홍보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 지금 이런 식의 홍보가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하는 홍보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관객들 입장에서는 글썄요. 예술극장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별도의 조직처럼 인식되어 있고 예술극장이 아르코 소속이라고 하는 부분도 과연 각인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웹진을 소위원회에서 계속 발행하니까요.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브랜딩을 항상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간다고 하면 웹진의 역할을, 지금 웹진이 조회수를 계속 높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 말고 작품들이 빠지게 되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과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다음 회차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1181호 2026년 예술기록원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보원 예술기록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저는 안전번호 1181호 2026년 예술기록원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을 보시면 저희 기록원의 주요 사업은 고가치 예술기록물 수증, 생산, 기록물 보존 관리 및 디지털아카이브 서비스입니다.

전체 총예산은 올해 54억이고요. 전년 대비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기록원 올해 주요 개선계획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물 생산입니다.

구술채록사업은 전체적으로 생애사 6건, 주제사 1건은 동일합니다만 작년도에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약 5개년 정도의 구술 후보자군에 대한 후보자 선정 회의를 거쳐서 생애사 구술후보자 139명 그리고 주제사 31건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후보자를 6건과 1건을 제외 중에 있고요. 현재 3명 정도 제외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학 분야의 정현중 선생님을 비롯해서 3명 정도 제외가 완료되었고요. 주제사로는 음악 분야의 여성 음악인의 산실 이화여중·고를 통해 본 60년대 음악교육을 주제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단계별 품질 강화입니다.

사업 연차가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매뉴얼이나 행정 양식을 계속 갱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들의 사례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여건이 되는 선에서 사례비를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연구팀과 촬영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촬영팀과 연구진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연영상화사업입니다.

공연영상화 사업도 42편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다만, 이 사업도 지금 47년차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공연영상화사업의 기록원 역할 재정립이라든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 전략과 실행 과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돈이 필요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의 사업 추진 전략과 사업구조로 개편할 것인지? 저희가 계속 촬영할 것인지? 아니면 근래 촬영하는 기술과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입수구조를 마련해서 저희가 촬영은 좀 줄이고 저희가 조금 더 현장 수집을 강화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갈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 결과를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공연영상들을 효과적으로 이관하고 촬영한 결과물이 이쪽으로 이관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가치 예술기록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기록물 수집입니다.

전년도에는 미술 분야 국전 기록을 수집했구요. 그다음에 연극 분야는 여성 국극 이옥천 선생님 기록을 수집했고 무용 분야는 박금자 선생님, 연극 분야는 현제명 선생님 등의 기록을 주로 수집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2026년부터 30년까지 중기 수집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실 기록원의 전체 인원수가 29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정규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되나 운영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수집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데에서 의견이 들어와도 저희가 그때마다 수집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전략 수집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집들이 조금 더 외부에서 와도 착실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기계획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로 소장기록물 등록과 공개입니다.

페이지 분량은 사실 굉장히 작지만 저희 기록원 인원의 44%가 이 작업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5만 5,000건을 공개했구요.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상향해서 5만 6,000건을 하는데요. 매년 제가 “올해는 5만 5,000건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5만 7,000건을 공개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 좋아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소장기록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기록원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계획 안에 소장기록물 공개를 해서 적체된 기록물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소장기록물을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은 소장기록물에서 미공개와 미등록 양방향 처리를 통한 공개 총력 인데요. “미공개는 무엇이고 미등록은 무엇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공개는 등록은 되어 있으나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사실 그중에서 정말 쓸만한 데이터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적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적을 모두 실물로 가지고 있지 못 하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데이터까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데이터들을 공개는 할 필요가 없기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노후 매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서비스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공개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 안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미등록 데이터라는 것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공개 못 한 데이터들인데 이것은 현재 내부의 5개 장르의 팀을 토대로 해서 공개할 데이터들인데요. 이 부분은 양쪽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온라인으로 등록된 데이터들이 전체 중에 55%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출입문 쪽에 개요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기록물 개요서에서 1차 목록이라도 저희가 공개로 하고 있어서요. 이 개요서를 통한 시스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공개율은 78%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기 보존입니다.

보존 관리 쪽의 인력도 사실은 정규직 무용 분야 기록물을 담당하시는 분이 겸업하고 있어서 많은 소장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한적으로 소리 기록물의 보존 관리도 신경을 써서 저희가 작년에 장비를 들여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교육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장고 보안관리를 강화해서 반출입 단말기를 설치해서 자격이 부여된 등록 직원들에 한해서 출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미등록 자료인 경우에는 일일이 태그를 붙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력 관리를 통해서 소장기록물 보안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드러나지가 않는 부분인데요. 수장고 안에서 보안관리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화재 대응을 위해서 모의훈련도 하고 매뉴얼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온향습기가 노후해서 전력율도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이 저희 사업비를 거의 다 잡아먹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향온향습기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및 시스템 관리입니다.

사실 그동안 기록원은 데이터 서비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등록했고, 등록해서 입력된 자료가 나오느냐 마느냐인데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된 예산이 이쪽으로 다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큰 흐름에서는 통합디지털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저희가 수장하고 있는 기록들을 이관해서 누리집 서비스 개편안에 3가지..... 사실 굉장히 범위가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것을 증액된 예산안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통합 디지털아카이브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요. 현재 목록형 서비스 하나와 누리집 그리고 원문서비스라는 2개의 시스템이 각각 별개로 운영하고 있어서 2가지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을 들이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기록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록된 위주의 기록물들을 입력해서 공개하는데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록이 수집되는 상황에서부터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할 경우 업무처리가 시스템에 기초해서 전체적인 기록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기능 강화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작업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누리집이 다르면 각각 다르게, 이력도 그렇고 그분의 작품도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밑에 통합 DB 구축 및 데이터를 정제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찾는 정보들이 작품 정보, 인물정보, 단체 정보, 공연·전시 정보 등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데이터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콘텐츠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구술 채록이나 공연 영상화 사업처럼 생산하는 아카이브 기관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사실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어서 지금 공개하고 있지 못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입력이 돼서 시각화나 충실한 맥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될수록 이용자들의 큐레이션 기능이 강화될 수 있고요. 디지털 자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예술 아카이브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시청각 기록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노후화된 기록들이 디지털로 변환되고 이 기록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백업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용량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각종 관리기능 지원입니다.

첫 번째 통계 관리, 이용자 검색패턴 등은 하고 싶어도 시스템 지원이 안 따르면 수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잘 보완해서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 DB 구축 및 데이터 이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정보인데도 다르게 검색이 되거나 아니면 예술가들의 이력 관리를 하는 곳이 한 곳에서 관리가 되어야 통합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데요. 구술 채록에서 나오는 예술가에 대한 이력 정보나 미술작가에 대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이력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구조화해서 그런 것들이 통합 DB 통해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최소 20만 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제된 서비스 범위고요. 지금 전체

적으로 기록물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규모는 47만 건.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원문 서비스하고 있는 게 20만 건인데요. 전체 기록 데이터들은 개선된, 도입된 시스템 안에 다 이관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누리집 개편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입니다.

현재 재구성되고 있는 목록과 원문서비스도 일부 되고는 있으나 이게 구술 채록에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집기록물 서비스 페이지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해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간 연계성과 호환성 강화로 결국 이용자들에게 탐색형이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인물 전거(典據)가 1,359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워낙 데이터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진행했던 국전 기록들을 10년 간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해서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물 전거(典據)를 구축하는 부분들, 작품 전거(典據) 구축하는 것은, 아예 용역을 내서 데이터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도 이 부분은 예산 투입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어떤 부분에서 이용률이 많이 오르고 개선이 필요한지를 점검해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작곡가 나운영 선생님 기록이 들어와서 저희가 기증을 받을 때 입수된 지 5년차가 되는 해에 저희가 학술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 기증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운영관리입니다.

기록원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할 것이고요. 중기 운영계획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잡아서 연차별 수집계획과 미등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공개. 그다음에 영구 보존 관리 계획을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입니다. 2029년이면 개원한 지 50주년이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한 행사도 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컬렉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항상 전통예술 쪽은 카테고리 자체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무용이나 혹은 음악이던 공연예술 쪽에 계속 전통이 섞여 있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따로 빼서 컬렉션을 하는 부분이 어려울까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지금 전달된 자료의 79쪽을 보시면 크게는 저희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공연예술종합, 정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전통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전통이라고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일단은 없고요. 전통의 양상을 볼 때 무용과 음악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개요서라든가 소장기록을 할 때도 각 장르 안에 전통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런데 이게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으려 했을 때 그 부분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과 있는 것은 좀 다른데요. 인력을 배분해서라도, 이런 디지털 시대에 분류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라 위원 :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을 보면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록이라는 게 자료를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평소에는 잘 찾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음지에서 애를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록원에서 얘기하기보다는 각 장르별 사업팀의 팀장님이나 기조팀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저희가 기록원에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서 구술 채록을 오래 했던 자료들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몇몇 주제나 소재들을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장르별 아이디어 없을지에 대해서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별한, 정시공모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특별 주제 공모를 하나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모에는 기록원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점을 준다거나, 각 장르별 이태준 선생님도 그렇고 백남준 선생님도 그렇고 기록원의 좋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제안한다면 그것이 전시나 또 다른 사업으로 활용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록원 자체에서 제안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각 사업팀에서 기록원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정보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운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산을 이쪽에 해야 하는데, 노후화 문제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튀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방문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김미라 위원님께서 음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음지가 되면 안 되는 기관이 예술기록원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71쪽 하단을 보면 예술기록물 관리 전문 인력 지원이 2025년에 6억, 2026년에 6억으로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는 상당히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대비 성과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업무가 늘어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성과지표 질문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정규 인력을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업무능력이 굉장히 확장되지 않고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업무 수행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면 품질관리, 검수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 여쭙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기록원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69쪽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AI 적용에 따른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 개선 타당성 검토’라고 하

셨는데요. 사실 오늘 얘기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AI 적용에 대한 바로 전단계의 사업들을 쪽 얘기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듣기로, 이 예산이 증액된 게 AI 예산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보고서를 보면 AI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사실 해석을 해 보면 이게 AI 전 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보완을 요청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체 증액이 AI 예산이라고 하면 이 글 자체가 현재는 이렇고 중기에는 이렇고 장기에는 이렇다는 설계에 의해서 이 내용이 나와야 AI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해가 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다시 기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설을 증액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용률입니다. 지금 김미라 위원님께서 이용률을 얘기하셨고 서승미 위원님도 이용률을 얘기하신 것과 맥락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용률 얘기를 넣다 보면 아마 정보원 선생님은 넘어지실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미술관 방문객들의 이용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옛날 시스템이잖아요. 패러다임이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정보원 선생님한테 권고드리는 것은 이용률이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되는가를 설득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답변이 공색합니다.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 개선. 특히 생산 자료에 해당됩니다. 구술 채록 사업과 공연영상 사업은 저희가 애초에 기획하고 진행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이 나와서 결과물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그냥 출장을 가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생산되기 전 기획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조건들. 이게 납품은 아니고요. 연구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기록물을 왜 생산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연구팀과 촬영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측면과 같은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이미 사전이나 진행 단계부터 많이 개입해서 결과물의 사후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기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를 전혀 주지 못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과 공개 과정에서 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로 공개할 수 있는 단계를 최소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당구장 표시했고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AI 전 단계인데 저희가 데이터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되면 AI 서비스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맞춰서 사업 진행이나 관리상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사업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문모 위원 : 68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사업 개요의 사업 방향에 ‘기관 전략·비전에 의거해서 예술가치 사회적 확산의 기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술가치 사회적 확산’이라는 게 바로 이용률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힘을 얻으려면 이 말이 성과지표와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정보원 선생님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예산 배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로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과지표와 연결이 안 되면 이 말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하나 물어볼게요. 선정위원회가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 후보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선정이 된 것인가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예, 선정된 결과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누가 선정합니까?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그렇죠.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구술자 선정 회의는 채록에 대한 경험이 있고 연구자 쪽에서 아실 수 있는 분. 그다음에 예술 현장을 아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하고 진행할 때는 장르별로 쪼개서 진행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20년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역대 구술후보자를 선정했던 내역과 빈도수, 얼마만큼 추천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위원들께서 검토해서 1차적으로 서면 의견을 주시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대면으로 모여서 서로 협의하셔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정갑영 위원 : 선정위원회에 관한 내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왜 이 사람이 선정위원이 돼서 위원회가 구성되느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은 어떤 사람이 되고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자체 내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고 많은 각 분야의 예술가 중에 거의 1년에 한 사람 정도가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 “왜 반드시 이 사람이 나가야 되냐?” 예술사의 역사에서 증명이 되고 동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선정 기준은 분명히 있고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라는 것도 내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나 선정위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근거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요. 이분들을 왜 선정했는가에 대한.

정갑영 위원 : 그것은 나중에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선정위원회 자체에 대한 것은 없어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고 그것을 명시하는 내규가 필요하죠.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록 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그리고 심사 방향 등을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해서 규칙을 만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적극 검토하고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더군다나 위원회가 5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도 5년이라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김진각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예술기록원은 저도 가봤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누리집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찾은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을 보니까 데이터 쪽, 시스템 쪽은 늘어났는데 기록물 서비스나 대내외협력 추진 쪽이 줄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줄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제공했던 서비스나 대내외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대외협력 어느 쪽이요?

김진각 위원 : 72쪽이요. 72쪽 표에 보면 6번과 7번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나 대내외협력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동안 해 왔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서비스 제공 예산이 줄었던 부분은요. 일단은 저희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중점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줄였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중에서 서비스 쪽은 원데이블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내외협력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각 장르별로 그다음에 중점사업 위주로 대외협력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내외협력도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구술 채록 사업을 담당하면서 대내외협력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은 효율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내외협력은 별도의 하나라기보다는 각 장르로 진행하고 있어서 크게 영향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K-판(K-PAAN)과 같이 공연문화예술아카이브 네트워크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와 소통을 통해서 협력 업무를 조금 효율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업무가 공개와 데이터 서비스 쪽에 있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서비스 쪽도 실은 전년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아카이브다 보니까 예술가 위주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평가 결과는 일반 퍼블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범위도 계속 넓혀야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작년에 르네상스감상실이나 원데이블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변동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오프라인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나 변동률은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대신에 기록물 이용권 수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록물을 온라인 서비스하고 방문해서는 원문서비스 위주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 작년에 진행하고 있는 미술관의 베니스비엔날레나 원데이블 등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데 온라인 쪽이 늘어나고 오프라인 수가 준다고 하면,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방문자 수가 준 겁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준다고 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간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그런데 오프라인 방문자 수는 줄었는데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용권 수는 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도서관 음반이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 위주로 연구자들이 오셔서 보시는데요. 이분들의 카운트 기준이 한 분 오셨다 두 분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기록을 이용하는 신청 건수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어서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 대신에 이용 건수로 보고 있으니까요.

성기숙 위원 : 아르코예술자료원에서 그동안 적은 예산과 소수의 인력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16억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된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예술기록원의 성과라고 보면 저는 예술가에 대한 증언채록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크게 보면 생애사와 주제사로 나눠서 하는데요. 생애사 같은 경우 과거에 보면 일대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된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이 기한이 있는데 예술 채록자의 어떤 기한을 맞추지 못해서 기한을 넘겨서 2~3년 끌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또 구술채록을 한 예술기록원은 외부

출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 외부 출판도 한 경우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사후 평가 관리나 환류,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술채록자에 대한 스킬,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좀 의문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아까 어떤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예술기록원에 운영 업무 영역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자료의 수집과 발굴 그리고 교육, 전시, 출판 그다음에 소장까지 하여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정상적으로 가져가기에는, 향후 기증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자발적 수집도 있을 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기에는 불안정한 컨디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향후 미래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정보원 선생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기존의 부분, 전문성이나 평가의 문제, 현장의 불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앞서서 보고를 다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이 시간에 안 계셨나 싶어서요. 68페이지를 보면 사업단계별 품질 강화 부분에 행정 양식을 개선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참여자 만족도 제고 노력, 연구진과 촬영팀 교육 강화라는 쪽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고요. 이 자료가 외부에 출판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식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반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관리 구조가 불안정하니까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부분은 70페이지 운영관리 부분에 2027년부터 2030년 중기 운영계획에 잘 담아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다 보고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출판하겠다는 것인데요. 몇 년 전에 아르코에서 외부 출판이 금지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출판이 돼서 판매된 경우가 있어요. 사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증언 채록을 했던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채록자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불만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소급해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 조치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시 사무처장은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술기록원을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예술기록원이야말로 저는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부서로 관리하기에는 기능적으로나 역할이나 규모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고요. 이것은 어떠한 분야보다 전문직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부서다 보니까 순환보직을 하면서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 주셨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K-컬처 시대를 맞이하고 여러 가지 양상 되고 있는 콘텐츠도 많고 아카이빙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간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지금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보고에서도 들으셨지만 수집해야 될 것은 많고 수집을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많지만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미처 하지 못하고요. 이미 들어와 있는 수장고 자료조차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대외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또 AI 시대를 맞아서 AI를 활용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라. 아까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장되어 있는, 아카이빙 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을 새로운 창작물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도 그런 측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한계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로 AI에 활용할 수 있는 축적된 자료, 데이터화 된 자료도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면 계속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통폐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리해 나가는 것. 분리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저는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예술기록원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아카이빙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기록에 남겨놓고 강력하게 정부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기숙 위원 :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같은 의견인데 한 말씀만 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아르코자료관의 역할을 해 왔지만, 현재 폭주하는 자료 분량이라든가 향후 역할과 기능에서 보면 과연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고요. 위원장님 말씀과 저도 동일한데요. 독립기구로 가는 것이, 문체부 산하기관의 통폐합이 추진된다고 하면 저는 아르코자료관이야 말로 통폐합의 0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전문 인력이나 예산, 공간적인 한계에서 보면 국립예술자료원 정도로 독립해서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방향성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번호 제1182호 2026년 예술인력개발원 시설 기본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다 보고드렸던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하지 말고 변동된 사항, 개선될 사항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술인력개발원 시설 기본 운영계획에서 변동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9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시설의 큰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예술인재양성팀이 24명인데 일반행정 직원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용역 6명으로 총 12명이 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 연간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안전관리, 전기 및 소방 점검, 소방 교

육 훈련, 감염병 예방 및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철저 이행 등은 기본적으로 매년 진행을 잘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특별히 진행해야 할 내용은 교육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 만큼 기기들을 계속 현대화 하는데 자산을 쓴다든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도에는 약 420명 정도가 시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대관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대 작화동과 무대 제작동 대관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131일 대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관 운영도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무대미술 스튜디오 중심으로 창작지원 대관을 하고 있고요.

95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시설 개선 관련한 내용은 시험 무대, 무대미술 스튜디오,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신규 기자재 구비 및 공간 개선. 그리고 개발원에 아직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이 없어서 전기차 충전 시설하고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빗물받이를 하는 공사를 예정하고 있고요. 실험무대 방수 공사, 잔널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내년 기준으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장기로 예술인력개발원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아까 대관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관에 대한 연간 계획이나 중기계획이 있나요? 이것은 재정수입에 관련된 거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수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대관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저희가 대관을 먼저 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 운영하고 남은 기간에 대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관계획이라고 따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거의 미미한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가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빌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동안은 거의 방치되어 있던 시설들이 많습니다. 워낙 접근성도 어렵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접근성도 어렵고 어떻게 거기에 장소를 정했는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각해서 다른 데로 옮겨보자는 생각을 가졌는데 매각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당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모를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이런 단체들도 많고 사용할 공간들이 부족하니까 이것까지 요구되어지고요. 보세요. 이 많은 시설을 우리가 1년에 쓰는 게 461명.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쓰는 겁니다. 461명이 이 시설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무대, 제작 등의 과정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데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일반 대관 신청도 들어와서 지역구 의원도 이것을 활성화 시켜주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하고 그쪽에서도 예산을 따주겠다고 얘기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도를 높이자고 해서 예산 비용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기숙 위원 : 이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기본 시설 운영계획인데요. 제가 연휴 때 ‘왕사남’(왕과 사는 남자)을 보고 단종 유배지 현장 탐방을 가려고 영월에 갔습니다. 혹시 여쭙보는데 2차선으로 가다 보니까 아르코연습장이라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우리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서 운영·관리를 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여쭙보려고 하는데 폐건물처럼 방치되고 있던데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연연습공간조성 및 운영사업이고요. 영월에도 조성되어 있는데 워낙 그쪽이 지역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일단 연습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5년 동안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돼서 강진 등은 굉장히 각광을 받는 연습장이 돼서 지역 예술인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인데요. 저희가 5년 끝나고 나서 지자체에 넘겨줘요. 넘겨주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영월 같이 워낙 인력이 적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요. 거기는 우리가 만들어줬지만, 우리가 5년 동안 관리할 때는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일단 지자체로 넘겨주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잘 되는 곳도 있고 못 되는 곳도 있는데요. 영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기숙 위원 : 영월이야말로 문화 불모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직원이나 공무원들한테 계몽적 차원으로 해서 그런 공간이 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5년 동안 해 왔는데요. 해서 넘겨준 것이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런 소멸지역 또는 지역균형발전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면 다 비어있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으로요. 그게 비일비재한 게 현실인데요. 그나마 우리가 운영하는 연습 공간은 저희가 직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는, 함께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성공 케이스가 꽤 됩니다.

이훈경 위원 : 사실 이 아카데미를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강습 내용들이 되게 현장에서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음향, 조명, 무대, 기획자 심지어 크루 초급단계부터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왜 잘 안 알려졌을까가 궁금해서요. 혹시 올해 모집이 끝난 것인지가 궁금했거든요. 두 번째는 혹시 이 시설을 저희도 가서 둘러볼 수가 있는지?

정병국 위원장 : 언제든지 둘러보시면 됩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드리고 가야 하는지?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팀장님이든 사무처장님이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연극 현장에서 이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연극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 출신입니다. 이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면 시설 규모 대비 인력은 적지만 그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도 높고요. 학교에서 교육만 받아서는 현장 투입이 어려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교육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연계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배은주 위원 :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해보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이런 공간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없죠. 그래서 이 시설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낮은데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전번호 1183호 2026년 무대예술전문교육 기본계획(안)입니다. 본 안전도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조금 전에 이훈경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과목이라고 무대예술전문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예술전문교육 안에 교육계획을 합쳐서 세워놨습니다.

일단 무대예술아카데미, 무대기술 분야 교육과, 지금 100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사업 체계를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아르코예술인력아카데미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와 아르코예술행정아카데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접수 받고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는 플랫폼 이름이 ‘문화예술 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는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기초교육과 종사자들의 재교육으로 전문 인력 대상 교육을 연간 40개 과정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예술행정아카데미는 온라인으로 64개 과정 오프라인으로 올해 기준 8개 과정 정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을 보시면 101페이지에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는 저희가 3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종사자 과정과 크루 과정, 공연장 연계 과정이라고 해서 종사자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들,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미 공연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입니다.

크루 과정은 기초, 실무 그리고 이쪽에 입직을 희망하는 예비 인력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공연장 연계 과정은 저희가 지역으로 실무교육을 직접 다니다가 이 교육 기능이 충분한 공연장들에게 이 교육 기능을 분산시키면서 공연장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을 만들어 나가자고 해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4개의 공연장으로 시작했고 올해 6개 공연

장이 같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으로는 기초 교육을 이수하고 종사자 교육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올해 6개 과정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대예술아카데미는 차년도 커리큘럼을 매년 9월부터 개발해서 그다음 연도 1월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술행정아카데미는 온라인 과정은 ‘문화예술 내 일’ 사이트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64개와 올해 6개를 신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장 교육은 총 8개 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명실상부 예술 행정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상위 기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 행정 쪽으로 특화해서 예술 행정 분야 종사자 대상 과정으로 특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술 행정 종사자들이 모여서 각자 사례 공유도 하고 네트워크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컨셉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차년도 커리큘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운영도 마찬가지로 교육계획에 넣었는데요. 플랫폼으로 접수받고 여기에 있는 교육생들 DB 관리도 하고 강사 정보도 제공하며 일자리 채용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과 커리큘럼 세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드린 내용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가보세요. 기숙사도 다 되어 있고 시설은 거의 다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1년에 사용되는 게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5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다 보니까 비어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안 쓰면 노후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가서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시작은 잘해 놓았는데 지금은 그 주변이 전부 개발이 돼서 했지만, 위치가 벽제 화장장 근방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도 안 되는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요.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공연과 관련된 인력들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도 그렇고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입자 교육부터 재교육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입니다.

본 안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지금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 신청에 비해 모집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뽑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모집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넘칠 경우, 강사에게 이 사람들의 프로필을 받은 다음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나이 제한은 없었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교육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경력별로 전문교육이라서요.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사에게 선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무대예술아카데미의 경우는 30년도 넘었고 짜임새가 있고 우리나라 무대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 아카데미는 여전히 불만스러워요. 지난번 발표하실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과정은 70개 과정이라고 표현하시지만 하루하는 과정도 1개의 과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심지어 현장 교육이라고 하는 6개 과정도 하루짜리가 대부분이고요. 온라인 과정에서는 64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나왔지만 ‘예술과 사회’ 이런 강의를 온라인으로 굳이 여기에서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무대교육은 괜찮지만 예술 행정 쪽은 조금 편제를 달리하고 내용을 한번 재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데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올해 전면적으로 콘텐츠 검토해서 폐강할 것은 폐강하고 남길 것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그건 누가 합니까? 폐강할 것은 폐강하고 새로 하는 걸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저희가 ‘문화예술 내 일’ 관련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하나 있고요.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서도 업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업체에 맡겨서 하시겠다는 거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업체에 맡겨서 같이 의논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장미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진부하다고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책임은.

정병국 위원장 : 책임은 우리가 져야죠. 답을 왜 못해요. 당연히 우리가 져야하는 거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하세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게 업체에 맡길 일이 아니고요. 우리 개발원에서 커리큘럼 개발위원회를 두든 자료원과 마찬가지로 내규를 만들어서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개발한다는 원칙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용역을 주겠죠. 용역사에서 그렇게 하겠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커리큘럼 개발운영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하고요. 그런 운영에 관한 것만 업체에.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보고해야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커리큘럼 운영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저희가 그때그때 그 분야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그때 하면 안 되고요. 내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선발하며 어떻게 운영하는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진부한 게 계속해서 나오고요. 또 이런 질문을 하면 이번에는 새롭게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겠다는 것이지 나와 있는 계획도 없잖아요. 그냥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상당 부분은 지역문화진흥원이나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2025년에 한 현장 교육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과 문화재단의 구조와 운영 방식의 이해’ 이것을 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지? 전국문화재단연합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많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해야되는 이유가 없다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이 과정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하고 업체에 맡기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커리큘럼운영위원회는 저희가 매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만드세요. 규정을 만드세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아무런 기준 없이 하다 보면 커리큘럼을 짜는데, 이것도 커리큘럼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짠 커리큘럼인데 이런 문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관련된, 이게 예술인재양성팀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팀에서 어떤 과정에서 결정할 때 위원을 결정하든 커리큘럼을 결정하든 방향을 결정할 때 그 절차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 절차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은 검토해서 관련된 규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철저하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고할 때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왜 높은지? 차별화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 이런 부분을 보고해 드려서 납득이 가게 해 드려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뭘 뭘 합니다.”가 아니라 왜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고 현재 운영한 결과 수요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보고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가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김진각 위원 : 116쪽을 보면 온라인 커리큘럼의 제작 연도가 2021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만든 것을 작년까지 콘텐츠로 서비스해 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맞습니다.

김진각 위원 : 2021년 자료를 계속 쓰고 있다. 사실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보면 커리큘럼이 아르코예술행정에 맞도록 차별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커리큘럼을 보면 예술경영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술 행정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술 행정 필드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거기에 맞게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작 연도는, 우리 대학에서도 온라인 교육은 많이 줄었지만 오래 해 봤자 2~3년밖에 안 해요. 그런데 2021년에 만든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커리큘럼을 예술 현장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다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예술행정아카데미 입문자 코스는 커리큘럼운영위원회에서 입직자 대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일단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리큘럼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장미진 위원 :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하셔서요. 수료 인원이 8명인데 현장 반응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대면 교육을 말씀드린 건데요. 문화예술행정 예비자 코스로 현장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모집인원 대비 신청 인원이 111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및 문화 구조와 운영 방식의 이해가 교육 내용인 과정의 경우 신청 인원이 111명인 만큼 현장에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속을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시 커리큘럼 도출 과정을 검토하고 규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도부터 계속하는데 있어서 매년 강사한테 규정이나 법이 개정되었는지는 검수를 받아서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커리큘럼은 예술 행정 관련한 NCS 관련 기반으로 처음에 도출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미진 위원 : 한 가지만 더 정확하게 여쭙볼게요. 아까 예비자 코스가 111명이 신청했다고 하고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참여 인원은 25명입니다. 그건 뭔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저희가 적당하게 설정한 모집인원을 25명으로 설정했는데 111명이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5명밖에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장미진 위원 : 그런데 보면 그 과정의 경우는 그런데 다른 과정을 보면 25명이 참여해서

수료는 16명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낮은 수료율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좋다고 볼 수가 없지 않나요? 35명이 했고 22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좋은 반응인거죠? 대체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게 수강인원 대비 수료 인원이 줄잖아요. 수료했다는 것은 전 과정을 다 들어야 수료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지키지 못했거나 뒤에 테스트한 다음에 수료를 시키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강의시간 80% 이상을 수료해야지 수료라고 하고 수료증을 주기 때문이에요.

장미진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당일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당일 수료를 그렇게 안 했다는 건 도중에 나갔다는 건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이 과정이 이틀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장미진 위원 : 아니요. 그것 말고 5번 ESG 경영이면 7월 23일 하루 했어요. 그런데 참여 인원이 35명에서 22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강의 도중에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현장 교육인데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리큘럼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필요한 파트를 듣고.

배은주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온라인 교육 수료는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못 맞추면 수료가 안 나오니까 문제를 못 맞췄을 수도 있죠. 온라인도 그래요. 문제가 나왔는데 못 맞추면 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들었지만 문제에서 기본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성기숙 위원 : 저는 여기 벽제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 예전에 갔다가 작년에 전담 심의로 이루어지는 무용 지원 사업 심의가 있어서 3~4일간 이쪽에 계속 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이 경기 북부의 열악한 지역에 있었는데요. 우리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의 존재로 인해서 그 지역의 입지도 분명 상승되는 효과도 분명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4년제 대학의 예술 행정이나 정책과 관련된 전문대학원 과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코인력개발원의 특화된 장점이라고 보는 것은 무대미술 현장 실무교육에서는 독보적이라고 보거든요. 단시일이 아니라 30년 이상 이것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대나 조명, 음향, 융합, 미디어 실무교육. 여기는 현업 종사자들도 교육하고 예비 인력으로 크루까지 교육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도적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장기 지속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술창작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어요.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특화해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육도 이 프로그램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이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교육 내용 중에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대예술 종사자들의 대응매뉴얼이나 대응 방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첨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무대 기술 교육은 굉장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곳에서 모아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원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극장과 MOU를 체결해서 지방에서는 위탁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방향으로 지역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위원장님, 아르코예술행정아카데미 운영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고요. 올해는 어떤 부분에 특화되고 내년은 어떤 부분에 특화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의 새로운 운영 방향이 아니라면 현재의 아르코예술행정아카데미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르코예술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은 뚜렷한 성과지표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결과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요. 이 교육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큰 효과가 아니라고 하면 이 인력 예산을, 다른 무대 기술은 수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수요도 많고요.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해서는 아르코예술행정아카데미 교육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1184호 2026년 공동창제작지원 지원금 조정 및 잔여 예산 활용계획(안)입니다.

본 안전은 교류협력팀 전현희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현희 교류협력팀 과장 : 안전번호 제1184호 2026년 공동창제작지원 지원금 조정 및 잔여 예산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잔여 예산 발생 사업은 2건으로 국제협업지원 네트워크 아르코사업연계 해외진출 지원에서 잔여 예산이 발생하였고요. 잔여 예산은 총 4,090만 원입니다.

잔여 예산 활용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아르코사업연계해외진출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착오로 인해 누락되었던 아티스트 사례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항목은 멕시코 세르반티노 국제축제와의 MOU 체결 당시 예술위원회가 아티스트 사례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누락했기에 기존 2,960만 원에서 아티스트 사례비 2,6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5,61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의 예비 후보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아르코사업연계해외진출지원에서 지원금을 조정한 이후 잔액인 1,390만 원과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 잔여 예산 50만 원인 총 1,440만 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에 편성하여 예비 후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획·네트워크에 편성하는 이유는 지원 규모가 최대 1,000만 원 내외고 해당 공모의 잔여 예산이 배정되어 예비 후보자를 선정했을 때 사업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비 후보자 선정은 규정에 의거하여 1순위는 지원신청 전액을 지원하고 차순위는 예산 잔액 이내에서 사업 수행 의사를 타진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85호 2025년 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희영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경영지원팀장 : 2025년 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위원회의 회계 구조는 문예 기금 회계와 고유 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고유 회계는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우리 기관에 사업 수행을 위탁할 때 그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의 회계를 의미합니다.

결산업무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끝이 나면 한 해 동안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현금결산과 재정 상태를 정리하는 재무 결산으로 외부 회계법인 결산 감사를 받습니다. 예술위원회의 경우 자회사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받았고요. 저희 예술위원회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 수감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 결산 내역을 기획재정부에 국가재정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에 2월 20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본 결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문예진흥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2월 말까지 문체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결산 감사가 늦게 진행되고 개편된 내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오류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결산 보고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의자료 140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항입니다.

결산에는 수입·지출 결산과 재무 결산인 재정 상태와 영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현금 발생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예 기금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 등 4,804억 원과 여유자금회수 약 489억 원을 포함하여 수입이 약 5,293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약 4,850억 원 그리고 여유자금적립금 443억을 포함하여 지출 또한 5,293억 원입니다.

회의자료 141페이지입니다.

고유 회계는 국고 약 232억 원을 포함하여 수입이 342억 원이고 사업비 집행을 통해 지출은 약 298억 원입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는 44억 원으로 잔여 예산 2025년 이월 사업으로 3월까지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 상태입니다.

문예 기금회계의 경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총액이 7,5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의 경우 8,363억 원으로 작년 대비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전입금 209억 원 등 총 269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사업비 증가 및 추정 사업으로 인한 예산집행 금액이 293억 원이 증가되어 자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채는 총 821억 원으로 작년 대비 25억 원이 감소하였는데요. 복권기금 미지급금 및 인사 미술공간사업 종료에 따른 방송발전기금보존금 반납 등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자료 142페이지입니다.

고유 회계의 경우 총자산은 71억 원이고 고유 회계의 사업 특성상, 전체 자산이 사업 종료 후 위탁 주체에 반환해야 함으로 모두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고유 회계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업상태입니다.

문예 기금회계의 경우 총수입이 4,931억 원에서 총비용 4,955억 원을 뺀 당기순손실이 24억 원입니다. 총수입의 경우 작년 대비 297억 원이 감소하였는데요. 사업 수행 및 사업 외 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원인은 작년 복권 기금반환금이 2개년치가 반환됨에 일시적으로 사업수익이 420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53억이 감소 등에 따라 작년에 일시적으로 편성된 수입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자료 143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작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문예기금사업비 및 골프장 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입니다.

고유회계의 경우 226억 원의 수입금 모두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2025년 회계감사 진행을 완료하였고 감사 의견으로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일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2월 27일 문체부 및 기재부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전번호 제1186호 2025년 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재산 설정(안)입니다.

본 안전도 전희영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경영지원팀장 : 다음 안전은 2025회계연도 기본재산 설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설정(안)은 위원회 및 골프장을 포함하여 정관에 의거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매년 이에 대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정관 별표1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 147페이지입니다.

2025년 연말 기준 예술위원회 기본재산은 2024년 5,911억 원에서 130억 원이 감소한 5,78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간 내역입니다.

예술위원회의 경우 13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금사업 집행비 증가 및 매년 이루어지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부분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경우 8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 공사 등에 따른 자본적 가치 상승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세부 현황을 보시면 문예기금적립금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412억 원으로 확인되며 예술위원회의 경우 토지 및 건물 등으로 기본재산이 총 2,660억 원, 골프장의 경우는 3,114억 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회계는 원래 자산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게 당연한 것인데요. 여기에 저희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기록원과 극장을 독립할 때 설립자본금으로 각각 100만 원씩 갖고 있던 것을 그대로 승계하여 200만 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본재산은 총액 5,780억 원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기본재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제가 회계는 잘 모르지만 여쭙보고 싶은 것은요.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게 적립금 아닌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적립금 맞습니다.

장미진 위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가 44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적립된 기금은 141억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미진 위원 : 140쪽에 올해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게 442억으로 나오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금적립금은 14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411억이요. 148페이지 2025년말 문예기금적립금이 411억인데 어떻게 다른 거죠?

정병국 위원장 : 같은 건인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적립금이라고 계산 한 것은 결산에서 나온 수치가 시점의 차이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미진 위원 : 얼마나 시점의 차이가 날까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저희가 보통 적립금을 계산하는 시점은 12월 말 기준으로 안을 만들어서 확정하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산 수치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결산 회계법인에서 결산 마감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그 시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장미진 위원 : 돈을 적립한 뒤에 나중에 남은 돈을 계산해 보면 그것보다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적어서요. 적립은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적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러니까 결산하면 이자 수입 잔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운용손실이 발생한 것이 반영되면 최종 결산에서는 가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결산 수치까지 반영해 보니까 실제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이 442억 9,700만 원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저는 기금이 얼마가 남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금적립금이라는 게 문예 기금적립금이 있고 2026년부터 사용하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면 약 1,180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 기존의 문예 기금적립금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게 약 400억이 약간 넘는 수치가 남아 있고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있는 적립금까지 하면 대략 1,1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건축물이 그렇게 많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700억 정도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매년 그게 몇십억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성기숙 위원 : 저도 단순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45페이지와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문예 기금 이외에 고유 회계로 총수입과 총비용인데요. 도표 마지막에 공연예술창작

산실 후원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후원금이 어떤 내역인지 궁금합니다.

전희영 경영지원팀장 : 공연예술창작산실에서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티켓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다시 단체 측에 돌려주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입장료 수익금을 참여하는 아티스트 단체한테 돌려준다는 의미인가요?

전희영 경영지원팀장 : 예, 맞습니다.

성기숙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1187호 2026년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 기본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안전번호 1187호 2026년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셨고 경영전략소위원회를 거쳐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난 2월 20일에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나온 제안들을 반영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의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54페이지 붙임 문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상세하고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위의 관련 근거는 자료로 같음하고요. 관련 근거에 따라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기본계획은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11가지의 세부 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 사업 아래에 있는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안에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사업인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이라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사업의 정확한 진단과 계획 수립에 근거가 되는 지식기반의 인프라로서 정책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보면 2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 역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연구 부분은 저희가 기관의 전략을 수립하거나 대내외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 예술지원의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 같이 장기적 관점을 가지는 연구와 기관의 현안을 해결하거나 긴급하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리서치를 개발하는 내용들이 정책연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학계나 유관기관 그리고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학술대회발표, 유관기관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소통연구 성과를 대내외에 확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류 체계입니다.

이렇게 추진된 연구가 2025년부터 저희 기획조정팀으로 통합이 되면서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전략이나 예산, 사업 운영에도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보시면 주요 환류 성과 및 사례를 명시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연구를 한 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연구만 가지고 보기에는 쉽게 확인되기가 어렵고 실제 어떻게 사업화가 되었는지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니까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바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연구가 실제 어떻게 환류되었는지를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AI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 정책연구 파트에서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만들어낸 AI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연구팀에서 만들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026년도 정시공모를 할 때 저희가 참여하는 예술가들과 심의위원들에게 AI 정책연구에 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저희가 예산, 사업, 정책에 있어서 연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 성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시사점 및 개선 방향을 봐주시면 저희가 2025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4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연구가 단순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예산이나 정책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정책연구원이 4명입니다. 저희가 정규직으로 260명이고 파견직까지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 조직인데 정책연구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구원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제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한편으로는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외부 정책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성과관리 지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문화예술세계총회를 전후로 저희 정책연구 파트로 연락이 와서 싱가포르, 호주,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여러 해외기관에서 저희 정책연구 파트와 회의를 요청해서 저희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과 지금까지는 그냥 캐주얼한 소통을 하고 예술위원회는 어떤 어떤 연구를 연구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있는 차원이었는데요. 올해 2026년도에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기관의 성과들을 해외로 확산해 보고자 하는 고민도 같이 해 보고자 2026년도에는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책연구용역이

라는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연구과제의 성격이나 범위를 고려해서 다양한 수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연구기관의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위탁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내부 연구 역량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현장 조사 등 규모 있는 연구가 필요할 때는 조금 더 긴밀하게 내부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서 추진하는 용역과 자체 연구를 함께하는 연구 형태도 있고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내부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용역이 아니라 대외 전문가들을 자문 형태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또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화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필요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중심이 돼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연구 등 크게 보면 4가지 형태로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책연구 추진 방식은 사무처에서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정책연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행할 과제를 뽑는 방식이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위원님들과 사무처가 함께 정책연구 과제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의결 받아서 정책연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세하게 적혀 있기는 한데 지난 1월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고 위원님들과 사무처에서 총 9개의 과제를 접수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정책연구 과제로 수행하는 일반연구비 예산은 2억 5,800만 원인데 이렇게 뽑혀 있는 후보군 중에서 최종적으로 뽑으면 2억 5,800만 원을 가지고 이 연구를 수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요 조사 제안 내용은 자료로 같음하고요. 자료로 같음하기 전에 지난번에 경영전략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9가지 제안 과제들에 대해서 정책연구 과제 심의위원회에 바로 맡기지 말고 저희 경영전략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다 모아서 경영전략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정책연구 심의위원회에 동일하게 공유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책연구 과제 후보군을 뽑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정책연구 파트에서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정책연구를 총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은 예산상에 사업으로서 정책연구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그 외에도 다른 파트에서도 정책연구가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총괄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분기별로 각 팀의 정책연구 수행 과제를 조사하고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고 정책연구 과제와 과제의 중복성을 먼저 검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중 장치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정책연구를 수행하겠다는 기안을 상신 할 때 정책연구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팀장이 협조 결재에 포함돼서 연구의 목적, 필요성, 중복성,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수행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 선정된 이후 단계별로 연구의 결과를 점검할 때도 저희 정책 파트의 연구원들이 전체 연구에 참여해서 주요 결과를 점검함으로써 최종 품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영전략소위에서 제안해 주셨던 게 그렇게 해서 수행되어 나오는 최종 결과 보고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외부 연구자로나 예술가들한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기획조정팀에서 일괄 수합해서 관리하면서, 정보공개법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는 기관 누리집에 공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비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다른 게 아니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 4개월 정도를 김성범 팀장님과 차슬기 대리가 굉장히 고생해서 아르코 데이터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책적인 수요를 발굴할 때 데이터를 표로 시각화해 놓고 데이터를 해 놔는데요. 너무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김성범 팀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내용을 갖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부서별로 흩어진 자료를 수집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이고 이 데이터북 만든 것을 갖다가 부서별로 다시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아르코데이터북이라는 게 일단 저희 전사에 여러 데이터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중순에 구문모 위원님께서도 계속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 팀에서 데이터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우선 샘플로 저희팀에서 발생하고 있는 10년 넘게 모아온 예산 수치를 데이터로 만들었고 그것을 50페이지 정도의 데이터북으로 만들어서 전사에 배포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연도마다 우리 기관의 창작, 향유, 가치 확산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었는지? 주요 재원의 수입원이 자체 재원과 외부 재원이 어떤 식으로 변동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는 경영지원팀에서 데이터 공모전을 해서 각 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공모전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공모전 형태로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것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자 발급 등.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모든 게 각 팀에서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데이터화가 되어야 하고요. 이게 우리 내부에서 전사가 공유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대외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지원체계를 갖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아까 보고를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K-컬처가 부흥하면서 어떤 지원체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이 데이터를 많이 요구하고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요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더 클 것으로 보고요. 또 외부에서 문화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우리 기관 내에서 팀 간에도 데이터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기관과 기관 간에는 더더욱 안 되어 있고요. 부처 간에는 더더욱 안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쓸 게 하나도 없다.”, “공공데이터를 다 오픈했다고 하지만 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장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준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표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기획조정팀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구문모 위원 : 활용 방안에 대해서 2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샘플을 한번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아까도 얼핏 얘기했는데 창작지원과 향유 지원의 10년간 트렌드가 나오고 왜 그런지가 나오는데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주장하고 있는 향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그 본질이 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북으로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정책연구 파트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갖고 의논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매달 웹진에 발표해야 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얘기할지는 팀장님과 얘기할 예정입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팀에서 연구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팀 간에 지원체계나 지원과 관련된 데이터가 적립되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구 결과물을 낼 것 아닙니까?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데이터는 있는데 그 데이터가 모여있지 않은 게 문제라서요. 모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모아서 외부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계획에 대해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16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일반회계 사업인데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이라고 사업명을 달고 시작했습니다. 특징이 만 39세 이하의 순수예술 청년 원천창작자에게만 해당이 되고요. 지원 대상은 총 3,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억이 국고이고 지방비와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1,500명, 비수도권에 1,500명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되면 2026년에서 2027년 2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요. 1인당 연 9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되면 2027년도까지 총 1,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고요. 2028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문체부의 방향이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국비 180억, 지방비 94.5억으로 해서 총 275.5억 원이고요. 수도권은 매칭비율이 국고 60%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매칭비가 40%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30%만 매칭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지자체 17개 광역문화재단이 사업 수행을 하게 되고요. 광역문화재단에서 청년 창작자를 선발해서 창작 예술가들에게 지원금이 교부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청년 예술가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필수 서류 등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층화비례배분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지금 광역문화재단 공모가 3월 3일부터 시작이 되고 지원심의 공모와 심의까지 하고 결과 발표가 5월 15일경에 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붙임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부터 붙임자료가 있는데 추진 배경과 추진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166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술 장르별로 창작 핵심 역할을 하는 창작자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연자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연 중심의 활동을 하더라도 원천 창작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게 열어 두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가장 큰 특징이 지역 광역재단에서 3배수를 뽑아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층화비례배분방식이라고 해서 지역별, 장르별로 뽑는 방식으로 1,000명을 선정하게 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68쪽을 보시면 공모 운영에 대한 지원 자격이나 지원조건 그리고 지원신청 서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점은 질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질문보다 생각한 것은 여기 내용은 좋은데요. 우리 예술위원회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빈약한 것 같은데요. 그냥 정산하고 종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조 설계 등은 문화관광연구원이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예술위원회 같은 경우 실행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참여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그리고 그 사람과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여

기에서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중간단계 창작활동 지원모델 신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려고 하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교부하고 자료 수집으로 끝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역할이 문광위와 차별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청년 창작자들이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데 네트워크나 성장하게 하려면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보다는 수준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위원장님도 따로 지시하시기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에이프캠 프나 청년 사업들이나 같이 연계해서 참여하는 청년 창작자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180억이라는 사업비에 비해서 전체 17개 광역재단을 포함한 운영비가 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행비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이디어로 많이 커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기본소득, 청년을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청년 예술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왜 넘기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불안한 기관한테는 못하고 가장 안정적인 기관인 아르코한테 위탁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3,000명이라고 하는 모집단을 선발하고요.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표준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되었고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관광연구원이 이것을 계속 팔로업하게 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할지? 어떻게 변형이 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불만스러운 것은 제외되는 대상에 보면, 이것은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900만 원을 그냥 주는 겁니다. 선택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도약사업이 제외가 되었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청년도약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제작 창작하는데만 쓰지 자기 생활비를 못 쓰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안 된다.”, “역차별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왜 제외시키냐?”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찰이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비 예술인은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제가 싸웠는데 결국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그래서 우려가 되고요. 이것은 현재 우리 기관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은 줬지만, 우리의 의견이 중심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향은 청년 기본소득을 하는데 광범위하게 하기는 뭐하니까 예술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놓고 이것을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미진 위원 : 지역재단에서 3배수로 올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화비례배분을 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변호사 입회하에 랜덤으로 추출한다고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 줘야 하는 건 예술인이나 아니냐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그러니까 저희가 창작계획이나 이 사람이 우리 사업모델에 맞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적격 판단을 해서 3배수로 올리는 심의는 하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나머지는 랜덤으로 뽑아서 실험 표본을 추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러더라도 지역별로 균형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성기숙 위원 : 우리 문예위 해당 부서에서 협의하면서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170억을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900만 원씩 2년 연속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회성이고 단기 지원인데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년도약지원사업이나 문예위에서 하는 사업들은 엄정한 공모를 통해서 창작지원 방식이나 과정, 결과물까지도 평가·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술창작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생계형 지원으로 해서 포퓰리즘 성격이 너무 강하고요. 이게 로또적인 성격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2년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나요?

정병국 위원장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몰라요. 2년 뒤에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왜 2년으로 연속하느냐 하면 1년을 해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을 해서 결과를 스터디해서 어떤 방향으로 다시 설계할지를 하기 위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 대상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런데 900만 원씩 2년을 지원해서 예술작품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창작하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생계비 지원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인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의견만 주세요.

김진각 위원 : 사실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예술위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복지성 사업이잖아요. 예술의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술위까지 온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도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적격자를 걸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랜덤으로 돌려서 뽑기를 하는 건데요. 적격자를 어떻게 걸러내느냐? 그러니까 무슨 기준을 갖고 걸러내느냐도 조금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그런 것을 잘 짜서 가이드라인까지 배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등급을 내서 창작계획이나 창작 경력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 심사는 모두 17개 광역재단에서 심의까지 해서 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과정이나 심사를 하는 노하우를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저희들이 줬고요. 광역재단으로 다 넘어갔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광역별로 할당된 숫자만큼 광역재단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이 정부는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을 하는데 카테고리가 없게 하게 되면 연구 결과를 추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잡아놓고 그 직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떨어지게 된 것은 복지재단이나 다른 기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못 하다. 결국 집행하는 것은 광역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잡아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거의 반 정도만 받아들여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냐?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김진각 위원 : 어쨌든 잘못되면 예술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병국 위원장 :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데 공짜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 내가 신청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나보다 못한 아티스트가 됐어요. 그럴 경우 문제 제기가 될 것이고요. “무슨 기준으로 저 사람한테는 900만 원을 주고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런 불만이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 공정성.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게 당연한데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술인이라는 것이 증명만 되면,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청년이라는 범주에만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범주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넣어놓고 신청하면 랜덤으로 3,000명을 뽑는 겁니다.

김진각 위원 : 적격자를 먼저 고른다는 것 아닙니까?

정병국 위원장 : 적격자를 뽑는데 적격자 내에서도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뽑는 거라서요.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제 취지는 적격자를 뽑으면 탈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신청했는데 “적격자가 아니다.”, “랜덤에도 못 들어갔다.”, “너는 공짜로 돈을 받을 자격이 없

다.” 이랬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미진 위원 : 기준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납득이 될 것 같은데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원천 창작 경력 예술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요. 169페이지를 보시면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50% 그리고 창작활동 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50%로 해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인 이상 그러니까 각 17개 시도마다 저희가 5인 이상의 전문가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재단에서는 랜덤이 아니고요. 그런데 광역재단에서 3배수가 안 될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가 있는 경우에는 창작계획과 경력만 있고 자격조건만 되면 그냥 올리라는 겁니다. 17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별로 배분(안)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15명입니다. 광역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정해진 숫자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 5,000명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3,000명을 골라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미진 위원 :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활동한 경력이 학교 다닐 때밖에 없다고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활동한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거네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학교에서 발표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회에 나와서도 예술인으로 활동을 했다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예술인으로 인정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러니까 이 사업이 K-Art 청년 창작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 실연자는 해당이 안 되고 창작자 그러니까 소위 작곡가, 작가, 연출가 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연자는 많이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활동 준비금과 차별화되어서 예술위원회의 창작에 방점이 찍혔기 넘어온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광역문화재단과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광역문화재단과 협력을 하려면 예술인복지재단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위원회가 주관으로 와서 일반회계 사업을 수탁받는 것이고요. 광역문화재단에서 공모가 나가게 되면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어떻게 창작활동을 해 왔는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장미진 위원 : 발표가 된 것에 한정된 거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광역에서 1차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

러니까 최대 3배수로 올리는 것이지 2배수가 될 수도 있고 1.5배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술지원 사업들이 프로젝트를 보고 심사하는 방식에서 예술가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생활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예술증명을 한 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는 거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이훈경 위원 : 그런데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서 지금 예술인복지재단 증명 건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많고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이 건으로 해서요?

이훈경 위원 : 그러니까 예술증명을 받아야 되는 건수로요. 그런데 그게 증폭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 건 때문에 예술인 증명 신청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위원들한테 빠르게 심사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연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술인복지재단이나 현장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예술활동증명은 안 받은 예술가들이 훨씬 더 많고요. 지역에는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애초에 반대했고 관찰시켰고요. 그런데 예술활동증명은 창작활동에 대해서 증명을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증명서를 받으려고.

이훈경 위원 :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술활동증명이 거의 몇 배수가 증가한 상태라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6년 제18회 아르코한국창작음악제 사업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죠. 제411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창제 개선 TF 결과를 보고드린 적이 있고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2월 10일 아창제 추진단에게 해

당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작성된 안을 바탕으로 해서 아창제 추진단 이사회에 포함되어 계신 왕치선 위원님과 서승미 위원님께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요. 해당 내용 검토 이후 2월 23일에 아창제 추진단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안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반영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접수가 되면 바로 2026년도 아창제 추진단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하단에 아창제 주요 성과인데요. 지난해 대비 많이 개선된 점은 2024년도에 첫 번째 유료화로 진행될 당시에 관객 수가 1,2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956명이 관람을 했고 665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은 매년 국악 분야의 관객이 많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양악 부분 관객이 더 많이 관람한 사례입니다.

178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사항 및 실행 과제들에 대한 요지들인데요. 지난번 아창제 TF 때 심사제도 개선, 공모·운영 절차 개선, 창작 환경·프로그램 강화, 홍보·관객 개발, 작품재연·연주에 대한 확대 그리고 해외 유통·확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해 달라는 내용들이 가장 주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서술적으로 풀어놓았는데요. 179쪽을 보시면 붙임1에 TF 개선 과제들의 내용이 어떻게 사업계획 안에 포함되었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크게 보시면 4개의 카테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작품 공모와 심사에 있어서는 공모 요강 세부 정보에 대한 강화와 조기 추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작품 공모를 위한 절차적으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작곡가들에게 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모 요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주단체, 지휘자 정보 등을 작곡가들이 사전에 알고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8월 정도에 공모가 올라갔는데요. 올해는 5월 초로 공모를 개선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안에서만 의견을 받아서 사업들이 운영되었는데 올해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뒤서 현장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이사회와 같이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도 재정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곡·지휘 합의제 검토와 각 분야 자문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심사 때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하였고요.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대중 친화적인 작품들, 아카데미한 작품들, 실험적인 작품 등 다양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또한 아창제 이사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심사위원 풀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 지역, 연령, 전공,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공모에 내는 작곡가들의 연속 참여를 최대 2회까지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추진단장님이 심사 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그간 진행을 해 오셨는데 추진단장님은 간사 역할만 하고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작품 공모와 심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홍보 체계와 관련된 전면적인 개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방향성으로는 그간에는 기획 연주회가 진행되면 그 기획 연주회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올해부터

는 공모 선정 과정부터 중간에 작곡가와 지휘자가 만나는 과정들 그리고 기획 연주회가 열리는 과정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스토리텔링해서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품 재연 관련입니다.

재연은 그간에 매년 지역 연주단체와 함께 재연 연주회를 매년 1회씩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창제 기간에 선정된 곡들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2회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로 하였고요. 국악, 양악 그리고 지역 연주단체들은 현대곡이나 창작곡들을 하고자 하는 연주단체들을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연주단체와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과 관련입니다.

추진단에서는 그간 단장님을 제외한 상근 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인으로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필요한, 기획 연주회가 열리는 시기에 필요한 시점에서 별도로 파트타임 형식이나 단기간 인력을 구비해서 연주회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축소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연 4회 정도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주요한 사안들이 결정될 때마다 이사회가 개최되어서 이사회 이사님들과 단장님 간에 자유로운 소통 그리고 충분한 의견 소통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아창제 미션과 비전 체계를 전체적인 조직운영과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안들은 봐주시면 좋겠고요. 180쪽에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예산안을 통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사항 중에 심사 진행에 각 분야 위원이 참여하는 건가요? 심사에 참여한다는 건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아니요.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은 별도 외부로 구성되고요. 위원님들은 참여하셔서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기로 이사회 때 의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심사 때 참여하셔서 발언 기회를 못 얻으셨잖아요.

서승미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운영 전반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맞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은 어찌 됐든 공정성에서 심사위원들이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이게 사실은 작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일면은 기획 공연이기 때문에 작품을 어떻게 배분해서 선정할지? 협주곡과 관객 친화적인 곡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편집장이나 음악 평론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자문은 좋은데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심사하는 날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조금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사회 안에서 고민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179쪽 밑에 보면 조직 운영의 추진단 운영 점검에서 이사회(예술위 음악·전통예술 비상임위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홍보 체계 개편도 있고 관리 성과 지표 구축도 있고요. 문화 일반에서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아창제 추진단이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고요. 별도의 정관을 갖고 있고 이사회를 함에 있어서 정관 안에는 현재 추진단장과 음악 그리고 전통예술 분야의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구조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문모 위원 : 내규가 그러면 문화 일반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현재 정관상에는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건은 지난번에도 논의를 많이 해 주셨지만 17년 전에 나는 유독 이 부분만 추진단을 따로 구성해서 상근을 두고 운영할 이유가 있었는가? 여기에 보면 5억 예산 중에서 1억 2,600만 원이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다른 분야는 장르별로 심사해서 하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처음 이것이 출발했을 때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취지가 뭐냐?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찾아서 그 취지대로 이게 운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본 다음에 이 제도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다시 접근해 보라고 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임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전면적으로 바꿀 것다든지 폐지하겠다든지 하는 의견을 줘야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그 부분은 아창제 추진단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의견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의 어느 파트에서 논의해야 할 거라고 하면 논의를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드세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지난번 전체회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선점만 해 놓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죄송한데요. 아창제 추진단은 현재 추진단장님의 임기가.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별도로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거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그것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 회의에 준비해서 보고하세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성기숙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아창제가 역사는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끼리끼리다.”, “아창제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개선을 위한 TF가 마련된 것이 음악 분야 비상임위원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보니까 상근 인원 3명이 2명으로 줄인 정도고요. 아까 말씀처럼 추진단장의 역할은 뭔지? 추진단의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TF에서 나왔어야 하는데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예위 공연예술팀에서 하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아르코썸페스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의 관계 설정은 뭔가? 그렇다면 아창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결정이라든가 예산집행 결재권자는 추진단장인지? 이런 의문이 있어서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되었고 아창제가 우리나라 전통음악 분야의 관현악 쪽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17년 동안 운영한 결과 대비 여기에서 나온 작품들이 현재 활용이 되는 게 거의 없다는 게 현장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실패한 게 아닌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정병국 위원장 :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얘기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시니까 근본적으로 17년 전에 이 분야만 왜 별도의 단을 만들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대로 운영이 되었고 그 결과가 나왔느냐를 놓고 평가를 해야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그것을 없앨 것인지 계속 유지를 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해 달라는 겁니다. TF팀을 그래서 만든 것 아닌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현재 시점 안에서는 내년 3월까지.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한다고 해도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그래서 시점적으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정병국 위원장 : 방향에 대한 것을 안 내놓고 이것을 하니까 문제 제기하잖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연간감사결과 및 2026년 연간감사계획 보고에 대해서 김선욱 감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감사실장 :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연간 감사 결과입니다.

193쪽인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는 없었고 회계감사는 오늘 보시는 의견 자료와 같이 ‘적정’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는 종합감사 1건, 특정감사 4건, 복무 감사 1건을 실시하였고 아래에 있는 세부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026년 올해 연간 감사 주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매년 감사원 주관 자체 감사 활동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가 왼쪽인데 이것에 비해서 항상 기관의 내부통제 지원 의지가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를 전 직원과 함께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관련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청렴 활동은 전 직원을 상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올해 자체 감사 주요 계획은 다음 페이지인 1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들은 순서대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지만 내외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우리 감사실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저는 특이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무용 분야에 문예진흥기금 심의와 관련해서 2026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심의 단계에서 특정 협회에서 사인 간에 오간 분쟁에 대해서 전담심의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해 달라고 감사관실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25년 전담심의제에 선정돼서 평가·모니터링 최종 단계 심사에서 동일한 협회에서 심사에 참여했던 전담심의위원이 최종 심사 단계에서 배제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아마 진단해서 공연팀으로 토스를 한 것 같은데요. 감사실의 직무 성격과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선례가 되면, 여기는 순수예술 지원 기구인데 전국 지자체에 있는 문화재단도 지원심의를 할 텐데요. 사인 간 오고 간 분쟁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문제 제기해서 담당 부서로 심사위원 배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전담심의제 심사위원 구성 당시 심의위원을 확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 단계를 거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1주간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공개검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앞으로는 우리 문예위가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것들도 진단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감사실장께서 감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선옥 감사실장 : 저도 여기에 와서 이런 신고를 받고.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지금 제기된 문제가 감사실의 감사 규정상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선옥 감사실장 : 저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해충돌방지법과 심의 규정에서 기피제도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세심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김성범 감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우리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 있어서 기피나 제척 혹은 회피에 대해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발언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정병국 위원장 : 감사님이시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감사 규정상 있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실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독립된 기구입니다.

성기숙 위원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냐 아니냐만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의문은 우리가 심사위원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공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아까 이해충돌방지법을 얘기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제척·기피 등이 있으니까 심사위원들이 숙지를 하거든요. 그러나 감사관실에서 할 때는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요. 이해충돌, 제척·기피는 심사장에 들어가서 내가 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면 자발적으로 제척 혹은 문예위에서 기피를 권고하고 이루어집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절차는 다 알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감사실에 의뢰했던 것이고요. 감사실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국민권익위에 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감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감사실에서 한 일을 “우리가 심사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여기로 갔느냐?”라고 얘기하면 맞지가 않는 거죠.

성기숙 위원 : 그것은 위원회 내부 부서에서도 의견들이 충돌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배제가 되려면 명확하게 성범죄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블랙리스트 관련자라든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인지하고 아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돼서 하여튼 전담심의 평가·모니터링 최종 심사에서는 공연팀에서 의문을 갖고 판단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심사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때 적절한 문제 제기의 기간을 공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져야 혼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위원님, 제척이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전담위원 혹은 전담관을 발표했을 때 제척사유가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심의에 참석을 못 하지만 회피나 기피는 심의 안건, 해당 안건에 한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크로 하게 보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관계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대화하시죠.

정병국 위원장 :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은 2026년 경영전략소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아까 기획조정팀장님이 주요한 내용을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특별히 없고요. 다만, 소위 때 나온 얘기 중에 4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의 포지션 문제로 지금은 현안 대응 쪽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안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외에도 본연의 역할, 전담 연구와 관련한 영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정책연구가 다른 연구기관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영전략소위원회 소위원장님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문예위가 기왕에 정책연구팀 박사급 4명이 계신데요. 기획팀으로 작년부터 편입이 되었는데요. 저는 계기성 연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문예위의 향후 나아갈 예술지원기구로서 정교한 정책연구를 전담 연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박사급 전담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력이 되면 연구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창제 같은 경우도 연구팀에서 정말 심층적으로 연구·진단 분석하는 것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창제 같은 것은 현안 아닌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기숙 위원 : 아니죠. 예술위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심층 연구를 할 필요가 있죠.

정병국 위원장 : 별도로 해서 운영하다가 기획조정팀으로 넣은 이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현안 대처에 근거를 갖고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를, 정책 결과물을 낼 때 전혀 축적도 안 되고 활용도 안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정책연구 인원이 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정책연구원들이 일반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정책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각 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안으로 된 것이라도 단기 프로젝트로 연구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대로 발전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인력이 보강된다거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집중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회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연구위원은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요구는 합니까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 이전에는 행정적 일들을 맡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전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우리 경영전략소위 때 김성범 팀장님이 충분히 설명했고 문체부 산하기관의 문화정책 관광연구원이 주력 연구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연구과제, 차별성, 특화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오고갔고요. 문예위 관련되어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관이 갖고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든가 대내외 위상 제고를 한다거나 예술 환경이 바뀌니까 예술 지원 어젠다도 바뀌어야 하고 정책 발굴을 위한 예술위 내의 관련된 것을 주력으로 연구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충분히 저도 이해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관의 정체성을 탄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논의한 보고 안건, 심의 안건에서도 예를 들어 국립예술자료원의 특화, 통폐합 문제라든가 이슈가 나온다고 치면, 그리고 아차제 같은 경우 우리 내부의 이슈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2026년 3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정병국 위원장 : 일단 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정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3월 27일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혹시 김성범 팀장님이 계실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김성범 팀장님이 저와 통화를 했던 내용에 대한 건데 말씀드릴까요?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김성범 팀장님과는 논의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2025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11월 전체회의 때 언급되어 11월 속기록에도 남아 있거든요. 제가 국정감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부분을 추가로 보완해서 속기록에 남겨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11월에 해외 일정이 있어서 전체 회의에도 못 나와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요. 김성범 팀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 오늘 의견을 물어서,

정병국 위원장 : 김성범 팀장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11월 국정감사 결과 보고드릴 때 성기숙 위원님 본인의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료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추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주셔서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병국 위원장 : 의견을 주셨나요?

성기숙 위원 : 그때 의견을 드렸고요.

정병국 위원장 : 받았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아니요. 그 의견은 아직 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의견을 주셔야 위원들이 동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죠. 이게 추가적으로 속기록에 추가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기숙 위원 : 그 당시 속기록에.

정병국 위원장 : 그때 속기록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속기록은 의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결이 돼서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추가로 넣으려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아야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과거의 속기록이나 회의록에는 넣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주시면 이번 달 회의록에 뒤에 첨부할 수 있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의견을 주셔야죠.

성기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의견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속기록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판단하시죠.

성기숙 위원 :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아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번에 안 되고 다음 회의 때요. 그러니까 다음 회의에 나오실 때 김성범 팀장한테 그것을 먼저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지난 11월 속기록 때.

정병국 위원장 : 속기록에 기록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회람을 시키고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 당시 말씀으로는 회람을 결정한다는 게 아니었고 속기록에 포함시키겠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회의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기록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나갔잖아요.

성기숙 위원 : 그 당시 제가 구두로 언급한다는 게 아니었고 추가 서면으로 드리면 포함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정확하게 전후 사항을 정리해 주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때는 발언을 못 하셨기 때문에 당시 속기록에 발언을 넣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기록에 발언을 담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의록에 붙임 문서로 달지 말지를 위원장님께서 회람을 통해서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김성범 팀장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성기숙 위원 : 김성범 팀장님과 말씀 나눈 것은 속기록에.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속기록이라는 것은 회의 자체를 그대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문건으로.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회의록에 의견을 첨부하는 겁니다. 어떤 의견을 첨부하실지 그것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회람한 다음에 첨부 여부 의견을 묻겠다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회의록에 첨부하는 것은 공개가 되나요?

정병국 위원장 : 당연히 되는 거죠.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회의록도 저희 경영공시를 하는데요. 공개가 됩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런데 김성범 팀장님과 얘기할 때는 속기록에 담는 유무를 오늘 언급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한테는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위원님은 회의록에 남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면 다음 회의 때 논의해서 첨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것을 회람을 통해서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겁니까?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이 그래야 동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성기숙 위원 :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정병국 위원장 :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위원님이 회의 중에 말씀을 하시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속기록에 기록이 되잖아요.

성기숙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 구두로 하든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결정된 회의록에 첨부하려고 하니까요.

성기숙 위원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제41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